

남성숙 칼럼



본사 사장

요즘 정치를 보면 밍고구마 열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다. 정의집회, 농성, 삭발, 단식, 피켓시위, 의혹... 한국에 살면서 좋은 정치란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국민의 고통에 비하면 정치는 얼마나 한심한가.

놀고먹은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치의 기본인 통합이나 민생과는 거리가 있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당, 통합, 신당, 대안, 혁신 등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정치 발전을 위한 대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해서, 정치인 김대중이 많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그린 다큐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을 보면서 5번의 죽을 고비, 민주화를 향한 고난과 역경, IMF 극복, 햇볕정책, 노벨 평화상 수상 등 김 대통령의 굴곡지고 찬란했던 삶을 영상으로 보면서, 이 시대 저런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다. 10년 이상 가택연금과 망

명, 6년간 감옥생활을 거치면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인동초처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실현에 헌신한 정치 거목 김대중! 필자가 정치인 김대중을 좋아하는 이유는 문제의식과 현실감각을 갖춘 따뜻한경제, 실사구시 외교를 추구한 점 때문이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춘 그는 대화와 협상을 하며 실용주의정치를 펼쳤다.

특히 그의 '대중경제론'은 특권층만을 위한 경제를 지양하고 중산층과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대중경제체제를 실현하는 대안을 제시한 점은 진보정치인은 경제에 약하다는 편견을 깨다. 야당 시절에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만들고 집권 이후에도 서민과 민생경제에 중심을 두고 경제정책을 계획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요회의 때마다 들고 다녔던 국정노트 71쪽엔 '대통령 수칙'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언제 무슨 계기로 그걸 직접 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렵던 시기에 대통령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일종의 '자경문'(自警文)인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가해진 슬한 정치적 음해와 비난에 인간으로서 흔들리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스스로 만든 경문은 요즘 정치인들도 새겨들을 만하다. '1 사랑과 관용, 그러나 법과 질서 엄수해야 2

인사정책이 성공의 길. 아첨한 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 6 불행한 일도 감수해야. 다만 최선 다하도록 7 국민의 애국심과 양심을 믿어야 한다. 이해 안될 때는 설명방식을 재고해야 8 국회와 야당의 비판 경청. 그러나 정부 짓밟는 것 용서 말아야... 10 언론의 보도를 중시하되 부당한 비판 앞에 소신 바꾸지 말아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옥중서신에서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조조하지 말며,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며 어려울때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위기관리 능력은 수직적인 통치 스타일에서 벗어나 정치적 대결 구도를 완화시키고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현실과 관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과 정치철학을 간직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다.

내년 총선이 코앞에 바짝 다가오자 호남에서 출사표를 내는 이들 중에 왕왕 김대중 정치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이들이 많다. 정당의 정체성과 관계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과 정치철학을 간직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지켜가겠다고 한다.

정치는 생각과 이념이 갈아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자리를 주더라도 정치철학의 다르면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같이 못하겠다고 자주 당이 쪼개지는 것이다.

어떤 당 어떤 후보가 김대중 정신

을 계승한다고 해도 관계없다. 적어도 그의 정신은 제대로 알고 실천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살아있는 정신은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근본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정치철학은 큰 틀은 인권과 평화에 목적이 있었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인권을 중시하고 작게는 가정의 평화와 나라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와 전 인류의 평화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고난과 고통,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한 평생을 국민과 함께 했다. 위기때마다 김대중전대통령이 그리운 이유다.

정치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대리인을 내세워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자신의 철학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치의 장에서 서로 다른 철학의 정치인들과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철학의 다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철학이 다를 수 있는 게 인정하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정치를 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자문했을때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은 이가 정치를 해야 한다.

장수 국가가 변하고 있다

기고



조영환 수필가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를 다른 말로 장수라고 한다. '성경'에서 나오지만 인간이 연계로부터 부여받은 수명은 120세다. 이를 천수(天壽)라고 한다. 하늘에서 정해놓은 수명이 120세인데 천수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뭐가 바쁘다고 50세도 안 돼 제세상으로 가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잘 경영하면 수명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옛날 천단 의학, 의술이 없는 시대에 노자는 '도덕경'에서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강조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인위적이고 가공, 조작, 기술 등을 가해 자연스럽지 못한 정치나 사업을 하면 무리가 따르고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는 의미다.

즉 사람이 추구하는 길은 다 자연을 의지해서 길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길이 풀리는 것이 도통(道通)

이고 소통(疏通)이라 했다. 이를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참의료는 의약품 투약보다 이치에 맞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었다. 병을 달래야 내가 산다는 티베트 격언도 있다. 심신(心身)의 병을 적으로 여기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뜻일 게다. 하지만 경증을 떠나 일단 병이 몸에 찾아오면 자꾸 힘들어지고 두려워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단순한 감기라도 일주일을 넘기면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병을 달래며 살아가라'는 말은 결국 병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관한 주문인 것이다.

자연환경과 자연식이 최고 장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장수지역 하면 일본의 오키나와나 파키스탄의 훈자(고산 청정지역) 같은 곳을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뉴스를 전하자면, 세계은행 발표 기준 세계 1위 장수 지역은 홍콩이다. 사실 이런 통계는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홍콩이 모든 통계에서 수위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다. 홍콩이 2016년부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뉴스에 호들갑을 떠는 언론이 조용한 편이다. 아마도 홍콩이 그간 오래가 장수 비결이라 믿어왔던 루머가, 신선한 채소나 물, 달고 짜거나 기름기 적은 음식과는 아예 거리가 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홍콩의 배후에는 중국 최대 공업

도시 선전이 있다. 낮은 산이 가로막혀 있지만, 선전의 대기오염은 홍콩의 대기와 직접될 수밖에 없다. 거의 홍콩 사람들은 모두 엄청나게 단디저트에 열광하고, 식물성 기름만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한국 사람들과 달리 돼지기름인 요리나 간식거리까지 광범위하게 섭취한다.

장수 비결이란 대부분 특정 시기의 결과를 놓고 끼워 맞춘 흔적이 강하다. 그다지 과학적이지 않은 조작성의도 짙다. 전자가 오키나와라면, 후자의 대표는 파키스탄 훈자 지역이다. 훈자는 요즘도 일부 언론에 평균수명이 120세이고, 90세에 아이를 가지는 지역으로 소개된다.

훈자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도 통제 불능이라 선언했던 파키스탄 서북변경구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 서쪽에 무법지대의 대명사 서북변경구, 북쪽은 중국 국경, 동쪽에는 그 시끄러운 카슈미르가 있다.

이 일대에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 제도로 실시된 건 파키스탄 건국 후의 일이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출생신고 기록이 없다.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어떤 신비가 존재할 것이라 믿는 방랑객과 그런 욕구를 이용하려는 지역사회가 장수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훈자와 거의 똑같은 식습관과 자연환경을 가진 인도의 라다크 지역에서는 이곳이 장수 지역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한다. 최근 장수 지역이라는 곳을 보면 대부분 먹고살 만한 나라들이다. 거의 모든 장수 국가 통계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꼽으려면 뛰어난 자연환경과 자연식 같은 게 아니다. 우리 상식과 달리 질 높은 복지정책,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때 유제품 광고에 등장하며 대표적인 장수 국가로 알려졌던 불가리아의 평균수명도 실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

홍콩의 경우 2000년부터 시작된 노인 생활수당과 무료 진료권을 장수 비결로 꼽는다. 홍콩은 노인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상의료를 제공한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의외의 장수 국가로 세계 3-5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나라 역시 강력한 건강보험을 운용한다. 적어도 통계적 의미에서의 장수는, '나는 자연인이다'같은 자연환경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회질 환경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초 고령화 시대가 도래 하는 지금, 의료 시장의 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조조발견 및 예방을 통한 건강수명 유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 복지정책이 계속 향상되었음은 틀림없다.

고 비상등을 켜 직진주행을 해야 한다.

또한 브레이크 대신 엑셀러레이터로 속도를 조절하고 매일 아침 기상상황을 확인해 기온 등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이어 또한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거나 스노우 체인을 이용하고 운전하기 전 공기압과 마모상태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손효진·화순경찰서 경무계

社說

‘5·18 미공개 사진첩’ 존재 정부가 밝혀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첩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최초로 공개된 보안사령부의 5·18 사진첩 17권 중 13권 이외에 최소 1~4권의 사진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13권의 사진첩이 공개되자 지역민들이 그날의 참상에 치를 떨어야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안당은 엇그제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에서 '광주의 눈물, 그날의 참상'이라는 주제로 5·18 미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안길정 재단 자문위원은 "사진첩 표제와 목차 하단에 '증거 자료'라고 적혀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사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연루자를 처벌하기 위한 입증 자료로 수집·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중 기록관 연구실장은 "시위의 과격성을 강조하고 계엄군 진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진들"이라고 말했다. 여학생들이 마치 발을 받는 듯한 사진을 포함한 일부는 군이 연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 수험생들 위한 입시 정보 확대해야

2020학년도 수능시험 성적표가 어제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면서 입시 일정이 본격 시작됐다. 오는 10일까지 대학별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면 합격생들은 13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뒤이어 수시 추가합격이 마무리되고 정시 원서접수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공교육기관과 입시업체들은 정시 지원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5일부터 입시 설명회를 잇달아 연다. 수험생과 그 가족은 정시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해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대학 입시 풍경이다.

수험생들은 통지 받은 수능 점수로 어느 지역,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모집 인원의 변화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특히 원하는 대학의 전형이 지난해와 비교해 변화가 없는지 세심하게 봐야 한다. 이를 수험생 혼자하기에 벽차 가족들이 나서고 함께 입시 설명회장을 찾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우리의 귀에 익숙한 메가스터디와 진학사, 대성학원, 종로학원 등 입시업

계들이 초대형 체육관을 빌려 정시 합격 가능성과 최종 지원 전략을 안내한다. 참여를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들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하거나 일부는 선착순 입장해야 한다. 이 같은 설명회장은 대규모 종교 행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인원이 몰려든다. 앉을 자리도 없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입시 전문가의 말을 경청한다.

이에 비하면 지방은 너무 초라하다. 광주지역의 경우 시교육청 대학진학지원단과 진학부장협의회 입시 설명회, 그리고 뒤늦게 나서는 한두 곳의 사설학원 행사 정도다. 이래 가지고는 지방 수험생들에게 입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능 점수는 학생의 실력이 좌우하지만 입시 전략은 정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다양한 입시 설명회장에 둘러싸인 서울 수험생들에 비해 지방 학생들은 또 다른 '입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벌써 뒤처져 입시를 시작하는 현실이다. 지역 교육 당국은 입시 정보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정시 비중 확대에 대비한 전략과 준비를 철저히 해가야 한다.

그래픽 뉴스

한경연 “국가경쟁력 13위 한국, 노동시장은 51위...유연화 필요”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0위권으로 높지만, 노동시장 순위는 하위권이어서 노동시장 유연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WEF가 10월초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10위 자리다.

다만, 분야별로 보면 노동시장 순위는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51위였다. 이는 OECD 국가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한경연은 이는 노동시장 평가의 두 기준인 '유연성'과 '능력주의 및 보상' 중 '유연성' 항목이 OECD 34위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사협력, 노동 이동성, 정리해고 비용 등 항목이 들어있는 '유연성'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평균(63.4점)보다 낮은 54.1점을 받았다.

이는 WEF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 34위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터키(99위)와 그리스(133위)만 한국 아래 있고, 전체 141개국 가운데는 파키스탄(96위), 이집트(98위)와 비슷한 위치다.

'유연성'을 평가하는 세부항목 중에서 '노사협력'(130위)과 '정리해고 비용'(116위), '해고·고용 관행'(102위) 등 순위가 특히 낮았다.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은 꼴찌, '정리해고 비용'은 33위, '고용·해고 관행'은 2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 세 가지 항목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낮아 노동시장 경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鎮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채널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진행부 650-2086	기획지원국 650-207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인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독자 투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주의 해야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 고속도로의 20층 추돌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층 추돌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바로 '블랙아이스'다. 블랙아이스란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표면에 얇게 얼어붙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얼음이 워낙 얇고 투명하여 육안 구별이 되지 않아 붙어진 명칭이다.

블랙아이스는 새벽시간 대에 주로 터널이나 지하도, 고가도로와 교

량 그리고 골목길 등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주로 발생한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운전습관'이 중요하다. 빙판길은 일반 도로보다 약 14배 정도 미끄럽고 제동거리도 두 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갑작 주행은 물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운전해야 한다. 혹시나 운전 중 빙판 위라고 생각이 된다면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